



정통부,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 우체국을 활용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통신요금 감면범위 확대 등을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4~5개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에 2003년까지 매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소프트웨어, 강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주부 등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매년 25개 주요 우체국에 100개의 상설 컴퓨터 교육장과 인터넷 자유이용실을 설치하고 우체국 직원이 교육을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15일부터는 장애인단체에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복지전화의 설치대수를 현재의 2대에서 3대로 증설키로 했다.

삼성전자, 케이블모뎀 대규모 수출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최근 캐나다 제2 케이블운영사업자인 비디오트론(Videotron)사와 케이블모뎀(ITCM : Integrated Telephony Cable Modem) 5만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케이블모뎀은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음성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모델로 MCNS방식을 채택한 텔레포니 통합형 케이블모뎀 수출로는 최대규모다.

이 제품은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기존 모뎀에 비해 데이터 전송은 물론 음성서비스가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속도의 경우 기존 33.3Kbps 다이얼업 모뎀보다 100배 이상 빨라 신문지 32면의 데이터를 4초 이내에 전송할 수 있다.

또 케이블모뎀 세계표준인 MCNS(Multimedia Cable Network System)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 타사제품과 호환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세계 최대시장인 북미지역 진

출에 성공함으로써 케이블 모뎀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 앞으로 수출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기통신, 한\일\홍콩 3국 간 국제 자동로밍 서비스

임대 로밍전화가 아닌 국내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로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국제자동로밍서비스가 실현될 전망이다.

신세기통신(대표 정태기)은 금년 12월 일본과 홍콩을 시작으로 자사 가입자가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도 별도의 단말기 임대나 가입절차 없이 위성을 통해 국내 이동전화로 자유롭게 송수신이 가능한 「국제자동로밍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세기통신은 지난 11일 일본 제2 이동전화사업자 DDI, IDO사 및 홍콩 허치슨사와 「한\일\홍콩 3국간 국제 자동로밍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2월부터 한\일\홍콩 3개 국가에 대해 공동통화권을 형성하기로 했다.



신세기통신은 이번 일본, 홍콩에 이어 내년 1/4분기중 미국과 호주로도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고 올 9월과 2000년 8월 예정인 글로벌스타 및 ICO위성서비스 일정에 맞춰 전세계로 자동로밍지역을 넓힐 방침이다.

신세기통신은 『기존 로밍서비스는 이동전화 임대나 별도 가입 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국제자동로밍서비스가 실시되면 국경없는 통화권 실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PC통신, 하이텔 "휴대폰 가이드" 서비스

한국PC통신(대표 신동호) 하이텔이 이동전화단말기 구입에서부터 가입, 저렴한 요금선 택법, 분실시 처리요령, 부가서비스 등을 각 이동통신서비스별로 비교한 이동전화 전문정보 「휴대폰 가이드」(go phonz)를 지난 15일부터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가격정보」 코너를 통해 최신모델의 상품정보 및 전국 7개 시도별 판매처 정보를 가격, 제조사, 서비스, 모델, 판매처별로 사진과 함께 검

색해 볼 수 있으며 충전기, 핸즈프리, 액세서리 등 주변기기 판매업체 정보도 제공하며, 이밖에 이용요금, 대리점, 서비스센터, 영업소 현황, 가입자현황 등을 통신서비스별로 비교한 자료도 제공한다.

삼성SDS-미국 인터트러스트, 인터넷 저작권 솔루션 협력

삼성SDS(대표 김홍기)는 미국 인터트러스트와 인터넷저작권 보호솔루션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체결,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 공급을 본격화하고 자체기술로 개발한 보안솔루션 「트러스트 프로 V1.0」의 판매를 확대하는 등 이 분야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최근 밝혔다.

삼성SDS가 공급할 인터트러스트의 제품은 MP3,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및 전자상거래를 자동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솔루션이다.

삼성SDS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 대금결제상의 보안문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판매,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매패턴정보 등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디지털쿠폰, 디지털회원권 등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 실거래에 가까운 전자상거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삼성SDS는 설명했다.

대우통신, TV리모콘 겸용 무선전화기 개발

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이 TV리모컨으로 사용하다 전화가 걸려오면 무선전화기로 사용 할 수 있는 리모컨 무선전화기인 「아망 테」(모델명 TC310)를 개발했다.

대우통신에서 개발한 리모컨 전화기는 9백MHz 무선전화기 휴대장치에 리모컨 기능을 부가해 개발한 제품으로 대우, 삼성, LG 등 회사와 제품 기종에 관계없이 모든 TV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무선전화기와 통합 리모컨부분의 회로를 독립적으로 설계해 고장 가능성을 제거했다.

휴대장치를 최대 3대까지 연결 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양방향 디지털 스피커폰, 모닝콜, 빠빠호출, 룸모니터 기능을 가지고 있다. ♦